



# 느끼며, 생각하며, 살며

백금옥/서울신학대 음악과 교수

**나** 뜻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달린  
얼마만큼의 감나무 열매들, 날씨가 추워져  
—— 창가에 찾아온 손넙, 허브 로즈마리.

낙엽이 여기저기 산만히 흩어진 거리에 어깨를  
움츠리며 종종 걸음으로 오가는 이들.

계절이 돌고 오는 주위 환경을 나 자신 떠 올리  
며 생각의 늪에 빠져든다.

마음 한 구석엔 허전함이 밀물  
처럼 스며든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쉬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

언젠가는 나의 존재도, 모든 이  
들도

다만 시간의 차이 일뿐.

실은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리.

무한한 시간속에서 우리 인생  
의 삶이란 시간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가!

그러기에 어떤 이는 짧은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잘 활용하려고 애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삶의 시간을 가벼이 여겨 함락으로 허송 세  
월로 보내는 이들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이는, 일시적인 삶에  
많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다.

실은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우리 삶의 궁극적,  
본질적인 것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이  
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랑, 진실, 희망, 겸손, 친절, 절제, 용기 등등

이러한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로 우리들  
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닌  
지!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것은 변하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못된  
다.

보이지 않고, 무한한, 영원한 세계를 위해 대부  
분의 사람들이 좀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애쓰  
다면 이 세상 더욱 더 아름답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 질 것이 분명하다.

이제 새 세기, 밀레니엄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새 시대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  
엇인가?

독버섯 같이 우리들의 삶을 오염시키는 물질적,  
가시적, 일시적 삶의 세계를 뛰어넘는 새롭고, 신선  
하고, 놀랍고, 영원한 메시지를 현대인들은 갈망하  
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돈, 명예, 권력, 쾌락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속박하고 억누르는 모든  
것에서의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이라!